

**^{99m}Tc - DMSA를 이용한 상대적 신 섭취율과
사구체 여과율의 상관성**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안승재 · 정유석 · 김용범 · 이동원 · 정현철 · 이수봉 · 폭임수 · 나하연

신 기능 저하 환자에서 신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구체 여과율(GFR)을 구하고 있다. 저자들은 1998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입원 기간 중 ^{99m}Tc -DMSA scan 및 ^{99m}Tc -DTPA scan 및 24시간 뇨 중 크레아티닌을 검사한 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군은 남자 35명, 여자 30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52세(22-80세)였다. 임상에서 신기능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는 serum Cr. level에 따라서 1.5 미만인 군(A군, 23명), 1.5-3.0 군(B군, 13명), 3.0초과인 군(C군, 29명)으로 나누어 각각 ^{99m}Tc -DMSA를 주사 후 1시간 후에 상대적 섭취율(DMSA-%uptake)을 구했다. 그리고, Cockcroft와 Gault가 고안한 추정 크레아티닌 청소율, 24시간 뇨중 크레아티닌 청소율과 ^{99m}Tc -DTPA 신장 스캔에서 구한 사구체 여과율(DTPA-GFR)을 DMSA-%uptake와 Spearman rank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군에서 DMSA-%uptake와 각각의 사구체 여과율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특히, DMSA-%uptake와 상관성은 A군과 B군에서는 DTPA-GFR (A군: $CC=0.817$, $p<0.005$, B군: $CC=0.768$, $p<0.001$)이 가장 높았고, C군(serum Cr. 3.0이상)에서는 Cockcroft 와 Gault가 고안한 추정 크레아티닌 청소율($CC=0.725$, $p<0.00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DMSA 신장 스캔의 상대적 신 섭취율(DMSA-%uptake)은 신 기능이 비교적 정상인 군, 중등도 신 기능 저하군과 중증 신 기능 저하군 모두에서 사구체 여과율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신 기능을 평가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P70

스테로이드 의존성 신증후군에서 진단된 C1q nephropathy 1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이정원, 이종은, 이승주

목적 : C1q 신증은 면역형광검사상 메산지움에 특징적인 C1q침착이 있고 전자현미경 검사상 전자 밀도 침착을 보이는 면역 복합체 사구체 신염이다. 1985년 Jenette와 Hipp에 의하여 단일질환으로 처음 보고된 이래 문헌상 34례의 보고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 없다. 주로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으로 발현되나 때로는 중등도의 단백뇨와 혈뇨를 동반하는 지속적인 사구체 신염, 신염-신증후군, 또는 반월상 사구체 신염으로의 발현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저자들은 스테로이드 의존성 신증후군에서 신 생검으로 진단된 C1q 신증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23개월된 여자 환아가 내원 2주전부터 시작된 전신부종과 소변량 감소로 타병원에서 일차성 신증후군 진단받고 1주간 스테로이드 투약하였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아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스테로이드(켈코트 1mg/kg/day) 투여 6일후에 이뇨가 시작되고 제13병일에 단백뇨 소실되어 퇴원하였다. 외래에서 스테로이드 감량중 단백뇨가 재발하여 스테로이드 의존성 신증후군의 진단하에 시행한 신 생검 결과 C1q 신증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스테로이드 의존성을 치료하기 위해 Levamisole(25mg qd)를 투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현재 싸이클로스포린(25mg bid)으로 치료중이다.

결론 : 스테로이드 의존성 신증후군 소아에서 C1q 신증을 진단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